

# 영국의 직업교육개혁 동향

| 박윤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yhpark@kriwet.re.kr)

전통적으로 지방 분권의 전통이 강했던 영국은 최근에 교육훈련 정책의 중앙 집권화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특히 보수당 정권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교육 문제가 1997년 6월 총선 이후 교육 최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수상이 집권하면서 정부의 핵심 사안으로 등장하였으며, 노동당 정부의 집권과 함께 꾸준히 교육개혁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영국은 자국 청소년들의 직업능력이 인근 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취업능력 함양을 위하여 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 추진된 영국의 직업교육 개혁 동향을 ‘14~19 개혁(14~19 Reform)’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 Curriculum 2000 >>

### I Curriculum 2000 개혁

영국은 청소년의 취업능력 함양을 위해 Curriculum 2000 개혁을 통해 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1997년 집권한 후 대학입학자격인 GCE A Level을 확대하고 직업자격을 질을 개선하며 모든 이들을 위한 직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key skill을 도입함으로써 상급 수준(advanced level)에서 폭넓은 학습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영국 정부의 의지는 GCE A Level, GNVQs, Key Skills의 변화를 제안한 자문 보고서인 ‘Qualifying for Success (DfEE/DENI/WO, 1997)를 통해 정책으로 옮겨졌다.

1998년 봄에 영국 정부는 ‘Qualifying for Success’ 보고서에 따라 상급 수준의 교육과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격 개혁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자격 개발 업무는 자격교육과정원(QCA: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에 의해 주도되었고, 2000년 9월에는 상급 수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학습자에게 새로운 정책들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Hodgson, Spours, & Savory, 2003).

Qualifying for Success로부터 제기되었고 후에 Curriculum 2000으로 명명된 이러한 개혁들은 네 가지의 주요 주제를 가지고 있다. 즉, 상급 수준(advanced level)에서 학업의 범위를 넓히기, 여러 가지 유형의 자격 간과 자격

내에서 보다 큰 기준의 일관성을 도입하기, 상급 수준에서 전문 교과 수 합리화하기, 학문자격(academic qualifications)과 직업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s) 간의 가치를 동등화하기이다. 이러한 주제는 GCE A Level 및 GNVQs의 변화와 새로운 Key Skills Qualification의 도입과 Advanced Extension Awards의 도입으로 반영되었다(Hodgson & Spours, 2003; Hodgson, Spours, & Savory, 2003). 한편, Morris(2001)는 Curriculum 2000 개혁을 ‘영국에서 지금까지 실행된 시험 체제 가운데 가장 복잡한 변화이다’라고 평가하였다.

Curriculum 2000 개혁의 주요 사항을 A Level 및 GNVQs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Key Skills Qualification의 도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odgson & Spours, 2003; Hodgson, Spours, & Savory, 2003; Spours, Savory, & Hodgson, 2002).

## AS와 A2

Curriculum 2000에서 새로운 제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문자격<sup>1)</sup>인 GCE A Level을 AS(Advanced Subsidiary)와 A2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서 학습자들은 첫해에 3개의 unit으로 구성된 AS를 취득하고, 다음 해에 A2를 완수함으로써 전체 A Level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들이 첫 해에 보다 폭넓은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고, 예전에는 2년 간의 학업을 모두 끝마쳐야 A Level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GCSE와 A Level 사이에 AS Level을 추가함으로써 1년간의 학습을 통해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데 AS의 주된 목적이 있다.

### ●AS Level

GCSE와 A Level 사이에 AS Level을 추가함으로써 학점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수료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 New Model GNVQs/ Vocational A Levels/ AVCEs(Advanced Vocational Certificates of Education)

A Level의 변화와 함께 GNVQs도 A Level과 균형을 이루고 전달이 보다 용이하며, 기준 측면에서 보다 일관성이 있도록 개정하였다. 일반국가직업자격인 GNVQs(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는 기존의 학문자격인 GCSE(General Certification of Secondary Education), GCE A Level(General Certification of Education Advanced Level) 자격에 대한 반성으로 1992년에 정규 교육훈련기관의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1) 학문자격을 영국의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까지의 단계에 해당하는 KS4(14~16세)를 이수하게 되면 중등교육수료 자격인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를 받게 된다. 그리고 KS 4를 이수한 후 2년 이상을 더 공부한 후에 3개나 4개의 과목에 대해 받는 평가는 대학입학자격인 GCE A Level(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Level)이다.

도입하였다. GNVQs는 직업세계로의 입문과 고등교육훈련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폭넓은 직업 경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 자격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근로자들이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직업능력(Key Skills)을 포함하고 있다.

일정 등급의 GNVQs를 취득하면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고, 이를 근거로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어 GNVQ는 A Level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대학 진학에 뜻을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직업 능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고 직업기초능력인 Key Skill을 배양해 주지 못하였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Green, 2003; Hodgson & Spours, 2003). 즉, GNVQs는 숙련 수준에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직업적(occupational)이거나 고등교육의 학업을 위한 최상의 기반을 제공할 만큼 학문적이지도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점차로 학생들은 숙련 업무(skilled work)를 위한 경로보다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GNVQs를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개발 담당자들은 점차 Vocational A Level로서 GNVQs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GNVQs는 Vocational A Levels 또는 AVCEs(Advanced Vocational Certificates of Education)로 변경되었다. AVCEs는 A Level 및 AS와 규모에서 동일한 6개의 unit 또는 3개의 unit block으로 설계하였다. AVCEs는 이전의 GNVQs보다 덜 직업적(vocational)이고 구조와 평가 방식에서도 학문적 경로(academic pathway)에 가깝다(Green, 2003). 그리고 GNVQs 내에 존재하던 key skill은 분리하여 별도의 key skill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AVCE는 상급 수준에서 일반교육을 넓히는 수단으로써 성공적인 기능을 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제기하고 있다(Hodgson & Spours, 2003; Hodgson, Spours, & Savory, 2003). AVCE는 현재 일반적으로 직업자격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학문적 성취면에서는 A Level만큼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평가이다(Green, 2003; Savory, Hodgson, & Spours, 2003). A Level의 비수료율이 7%인데 반하여 AVCEs의 비수료율은 22%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Savory, Hodgson & Spours, 2003). 또, 학문자격인 A Level과 비교할 때 가치나 사회적 인식면에서 동등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구조와 평가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Hodgson & Spours, 2003). 영국의 여러 학자들(Green, 2003; Hodgson & Spours, 2003)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14세 이상의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의 통합된 교육과정 및 자격체제 설계를 제시하였다.

GNVQs는 대부분의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기초 직업능력(key skill)을 포함한다.

## Key Skills

영국에서는 직업교육의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고, 일반교육의 내용이 부족하며, 일반교육(16세 전후)은 기능과 지식의 적용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학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Hodgson & Spours, 2003)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직업교육에 일반교육을 강화하고 일반교육에는 적용 능력(applied skill) 등 직업교육 내용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영국 젊은이들의 실업률 증가와 함께 더욱 압력을 주기 시작했고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 있는 인력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난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실업률 증가와 경쟁력 낮은 인력 양성의 위기감은 Key Skill 개발의 가장 큰 기폭제(pressing demand)가 되었다(Hodgson & Spours, 2003).

직업기초능력자격(Key Skill Qualification)이 16~19세의 모든 청년에게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영국 정부는 16~19세의 모든 청년이 Key Skills을 이수하기를 원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영국 정부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수리적용력(application of number),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Key Skill을 Level 1, 2, 3으로 구성된 단독 자격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GNVQs에 통합되어 있던 Key Skill은 2000년 9월에 분리되어 Key Skills Qualification을 도입하였으며, 성취 여부는 포트폴리오 증거(evidence)와 개별 unit과 관련하여 외부 평가를 통해 측정한다.

영국 정부는 학습기술개발원(LSDA: Learning and Skills Development Agency)에 의해 현장에 전달하는 Key Skill 지원 프로그램(Key Skills Support Programme)<sup>2)</sup>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였고, 모든 학교와 대학에 무료로 자원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Key Skill Qualification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 기관과 sixth form college에 재정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Key Skill이 직업자격에 한정되기보다는 16~19세 대상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에 Key Skill을 결합함으로써 상위수준(advanced level)의 교육 과정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였다(Hodgson & Spours, 2003).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이외에 현재 영국에서 Key Skill을 지도하는 교사는 Key Skills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Key Skill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받지 못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Green, 2003). 또, LSDA, QCA 및 다른 기

영국에서 청소년들의 실업률 증가와 경쟁력 낮은 인력양성의 위기감은 Key Skill 개발의 가장 큰 기폭제가 되었다.

Key Skill 지원 프로그램은 상위 수준의 교육과정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였다

2) 직업기초능력지원프로그램(Key Skills Support Programme)은 일에 중심을 둔 직업기초능력 관련 프로그램은 각급 학교가 운영하도록 하면서 생기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학습기술개발원(LSDA)은 직업기초능력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훈련 제공자, 고용주 그리고 교수자들이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평가·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직업기초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들이 제공하는 Key Skill 지원 및 개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학습자, 교사 및 고등교육기관들은 개혁된 상급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Key Skills의 활용이나 교환가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Hodgson & Spours, 2003). 아울러 Key Skill Qualification은 취득하기도 어렵고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dgson & Spours, 2003).

Hodgson과 Spours(2003)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14~19세 대상 교육훈련에서 Key Skills의 개념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며, Key Skills를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14세 이상의 교육과정 및 자격체제를 도입하는 길만이 Curriculum 2000내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일관되고 포괄적이며 통합된 14+ 디플로마 체제에서는 Key Skills 함양이 가능하며, 이러한 디플로마 체제에서 학습 및 고용을 지원하도록 설계한 Key Skill은 일부를 위한 주변적 활동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Curriculum 2000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제시되고 있다. Curriculum 2000의 긍정적인 측면은 상급 수준에서 이수 교과수가 증가하였고, 학문자격과 직업자격 및 Key Skill을 포함한 혼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습자 수가 제한적이지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Hodgson, Spours, & Savory, 2003).

반면, Curriculum 2000에 대해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영국 정부가 Curriculum 2000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혁의 도입 과정에서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외부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들이 자격의 설계와 타당성에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개혁 과정이 성급하게 보여지고 계획과 실행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비공개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Curriculum 2000은 충분한 교육전문가들과의 협의와 자문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급하게 시행하여 학교 교사와 고용주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자문 및 협의가 제한적이었던 배경에는 A Level을 고수하려는 전통주의자들과 포괄적인 바칼로레아식의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자들의 요구가 대립한 데에 그 까닭이 있었다(Hodgson & Spours, 2003).

*Curriculum 2000은 개혁도입 과정에서 여러 외부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들이 자격설계와 타당성에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I 14~19세 대상의 교육과정 및 자격의 개혁

Curriculum 2000 실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이러한 문제들은 14세 이상의 통합 교육과정과 자격체제의 개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Green, 2003; Hodgson & Spours, 2003).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2003년 3월에는 14~19세 대상의 학습 프로그램과 자격체제 개발을 위하여 마이크 톰린슨(Mike Tomlinson)를 의장으로 하는 '14~19세 개혁에 관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 on 14~19 Reform)'를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는 14~19세 대상의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2004년 10월에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실무위원회의 업무는 14~19세의 학습 단계가 모든 젊은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19세까지 모든 젊은이들이 성인 생활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해야 하며, 14세까지의 학습에 기초하여 19세 이후에도 학습과 고용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14~19세 대상의 학습은 포괄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혁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Working Group on 14~19 Reform, 2004). 그 내용은 학습 참여율과 성취를 증진하고, 현재의 직업자격은 학습자에게 일관성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화 학습과 취업을 위한 진행 경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업경로를 보다 강화하며,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대학 및 고용주들이 청소년이 취득하는 자격의 가치와 적절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실무위원회는 14~19세 대상의 교육과정(curriculum)과 자격(qualifications)의 통일된 체제 개발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하고, 보고서에서 14~19세의 교육과정과 자격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무위원회는 14~19세 대상의 자격체제는 학문 영역과 직업 영역을 포괄하고 최종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문(entry), 기초(foundation), 중급(intermediate), 상급(advanced) 수준(level)의 디플로마 체계(diploma framework)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체계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심화된 학문 영역과 직업 영역을 탐색할 수 있도록 폭(breadth)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력을 고양시킬 수 있게 된다. 영국의 '14~19세 개혁에 관한 실무위원회'에서 새롭게 제시된 디플로마 체계를 현재의 자격제도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학습자에게 직업자격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경로를 보다 강화하여 14~19세 대상의 교육과정과 자격체제를 개혁하고자 '14~19세 개혁에 관한 실무위원회'가 발족되었다.

[표 1] 디플로마 체계와 현재의 자격제도

디플로마 수준			국가자격 수준	현 국가자격
상급 (Advanced)	핵심 (core)	주요학습 (main learning)	Level 3	Advanced Extension Award, GCE and VCE AS/A level; level 3 NVQ, 0과 동등 수준의 자격
중급 (Intermediate)	핵심	주요학습	Level 2	GCSE A-C, 중급 GNVQ, level 2 NVQ, 0과 동등 수준의 자격
기초 (Foundation)	핵심	주요학습	Level 1	GCSE A-C, 중급 GNVQ, level 1 NVQ, 0과 동등 수준의 자격
입문 (Entry)	핵심	주요학습	Entry	Entry Level Certificates, other work below level 1

자료: Working Group on 14~19 Reform (2004), *14~19 Curriculum and Qualifications Reform: Fina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14~19 Reform*, DfES, p.7.


이상의 디플로마 체계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롭게 제시된 디플로마 체계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심화된 학문 영역과 직업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창의력을 고양시킬 수 있게 된다.

첫째, 모든 젊은이들에게 인문교육과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14~19세 프로그램에 핵심 학습(core learning)과 주요 학습(main learning)을 포함하여야 하며, 입문 단계부터 상급 단계에 이르는 네 가지 수준 가운데 한 가지 수준에서 수여되는 통합된 디플로마 체계에서 조직하여야 한다.

핵심 학습에는 각 수준(level)에서 공통적인 지식, 기능 및 경험의 핵심(core)으로서 젊은이들이 학습, 고등교육, 고용과 성인 생활에서 성공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실용 수학(functional mathematics), 실용문해 및 커뮤니케이션(functional literacy and communication), 실용 정보통신기술(functional ICT), 공통 지식, 기능 및 태도(CKSA: common knowledge, skills, and attributes)를 포함한다. 또, 핵심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프로젝트(extended project)와 여러 활동(wider activities)을 통해 혁신적이고 탐색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주요 학습은 모든 수준에서 디플로마 필요조건의 약 2/3를 차지하며, 주요 학습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관심, 강점, 재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일관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16세까지의 주요 학습은 Key Stage 4에서 법에 제정된 필수 교육과정을 포괄하게 된다. 또, 주요 학습에서는 취업을 대비한 특정 영역의 학습 및 현장중심 훈련과 고등교육 이수 준비를 위한 학습이 가능하다.

둘째, 특정 수준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성취를 나타내는 디플로마를 취득할 수 있다. 디플로마 체계에는 20개의 '학습 라인(lines of learning)'이 있는데, 개별 라인에서 디플로마의 이름은 주요 학습(main learning)의 내용에 따라 불리게 된다. 

## 참고문헌

- DfEE/DENI/WO-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Department of Education Northern Ireland/Welsh Office.(1997). *Qualifying for Success: A consultation paper on the future of post-16 qualifications*, DfEE, London.
- Green, A.(2003). *Building the 14-19 'Occupational Route' in England: Submission to Tomlinson 14-19 Enquiry*. Unpublished Paper.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Hodgson, A and Spours, K.(2003). *Beyond A Levels: Curriculum 2000 and the Reform of 14-19 Qualifications*. Kogan Page, London.
- Hodgson, A., Spours, K, and Savory, C.(2003). *What do we Mean by a Broader Curriculum?: Curriculum 2000, Breadth and 14-19 Reform, Broadening the Advanced Level Curriculum IOE/Nuffield Series No. 9*.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Morris, E.(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Skills)(2001). *Morris Points Forward on A Level Reform*. DfES Press Release, 2001/0304, 11 July.
- Savory, C., Hodgson, A., and Spours, K.(2003). *The Advanced Voc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VCE): A general of vocational qualification? Broadening the Advanced Level Curriculum IOE/Nuffield Series No. 7*.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Working Group on 14-19 Reform(2004). *14-19 Curriculum and Qualifications Reform: Fina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14-19 Reform*. DfES, London.